



# 부산시립무용단 「광복 50주년기념 신·춘·무·용」



고광훈(高光薰)의병장의 불원복기(不還復旗).  
태극기에다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는  
글을 남겨 투쟁의 의지를 남겼다.

## 일·구·사·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이 후...』

'95. 3. 24(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 회원권/일반 5,000 학생 3,000 ■ 공연문의/시립예술단 홍보부 ☎ 623-0179

### 예매처

남부 영창피아노 623-0815 경성대 앞  
면학서점 623-9404 경성대 입구  
앤젤 베이커리 622-9353 남구청 입구  
현인 소리방 518-0686 부산대 앞  
문무당 서점 245-3843 버스정류소 앞  
하모니 영창피아노 246-4000 미화당 백화점 옆

새한 영창피아노 246-0118 새부산 예식장 앞  
서면 동보서적 803-8000 동보극장 옆  
부산 음악사 803-1527 서면학원 옆  
영광도서 816-9500 서면 북개천  
중앙악기 633-5300 부산학원 옆

### 음악감상실 이용안내

- 운영일시
  - 매주 월~금요일 16:00~19:30(3시간)
  - (토·일·공휴일 휴무)
- 운영내용
  - 일반음악 감상회/매주 월~목요일
  - (무용교향, 협정곡)
  - 영화감상회/매주 금요일
- 각종 동아리 및 단체 이용 현황
  - 문의/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25 8157



# 부산시립무용단 「광복 50주년기념 신·춘·무·용」

일·구·사·오

##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 이후...』

여름 : 구성 · 안무/서지영(수석단원)

여름이 왔습니다  
 큰물이 몇번 지나갔습니다  
 큰불덩이가 지나갈 때마다  
 폭들은 흙탕물 속에서  
 뿌리째 꽃잎을 뜯기며  
 숲락혀 흔들리다가  
 물이 지나간 후에  
 냉작하게 얼드려  
 폭들은 붉은 흙을 피쳐전 토하여 웅었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웅었습니다

가을 : 구성 · 안무/이송희(수석단원)

가을이 왔습니다  
 큰물은 남쪽으로 흘렀고  
 큰바람은 북쪽으로 불었으므로  
 폭들은 일어나  
 꽃을 또 피웠습니다  
 아이들이 꽃잎을 따다가  
 가을 바람에 날리어  
 강물에 실어 보냈습니다.  
 꽃잎들은 떠나가며 웅었습니다  
 물보다 깊이깊이 웅었습니다

겨울 : 구성 · 안무/홍기태, 장래훈(수석단원)

겨울이 오고  
 꽃이 없는 폭들은  
 자기보다 더 길고 더 딱딱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쓰러졌습니다  
 그 위에 하얀 눈이 내려  
 이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그 흰 눈 위에  
 피운은 빨자국등이 응달진 산속으로  
 수없이 숨어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살아날  
 진달래, 진달래꽃입니다

봄 : 구성 · 안무/이윤희(부수석단원)

봄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몇번 지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지날 때마다  
 겁먹은 폭들은  
 천지사방으로 몸을 흔들며  
 바람 속에 숲락혀 꽃잎을 띄우며  
 피륙이 터지게 흔들리다가  
 바람이 지나간 후에  
 냉작하게 누워  
 붉디붉은 하늘로  
 붉은 숲을 뿌리며 웅었습니다  
 목이 터지게 웅었습니다

시인/김용택 “그이운 꽃편지 中”

